세이비어 교회 소식

1.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교회 광고
   - 주일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 수요예배와 토요 새벽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 교회 현장예배에 참여하실 때 발열 체크를 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교회 창립 5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4.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요예배와 토요새벽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11/01		최홍만		
11/08	박명자	권이남		

예배 및 모임 안내

모 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30분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본문: 시편 122편 1~9절
기도제목: 1. 기쁨이 충만한 교회 출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2.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3.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들어가는 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시편 숫자 옆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져가는 우리의 이민생활 가운데 매 주일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쁨으로 올라가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이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들, 속상한 일들, 슬픈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일이 찾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 다시금 기쁨의 깃발을 세우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 기쁨은 하나 됨으로부터 나온다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조밀한 성읍이라는 뜻은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잘 짜여진, 연합하다, 결합되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은 언제나 좋은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로 연합이 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분열되고 갈라진 곳에서는 기쁨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 하나로 연합된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세이비어교회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욱 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 예배 드리는 이유(목적)
첫 번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나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집에 찾아온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5절 말씀입니다. 판단의 보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문제를 풀고 갈등을 해결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요? 판단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먼저 나의 허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4. 평안과 형통
끝으로 6~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축복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공동체의 평안을,살롬을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가정도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할 것이라고!
샬롬과 형통함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이비어 교회여! 평안할찌어다! 세이비어 교회여 형통함을 누릴찌어다!" - 아멘

나가는 말
지난 5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며, 그래서 하나 됨을 이루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더욱 충만해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월 25일 헌금 상황

교회 후원 선교사

김덕래, 김홍덕, 정철웅, 이상진,

교회 지원 단체

뉴욕 밀알선교단, 뉴욕 농아인 교회, 주님의 식탁
한밀교회(한국)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 Tel : (929) 225-0656 / www.mysaviorchurch.com

2020년 11월 1일

SAVIOR CHURCH
세이비어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8시PM)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송영 Invocation	사회자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경배와 찬양
▲ 찬 송 Hymn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호수아서 강해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말씀: 정요한 목사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44번(요한복음 1장)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찬 송 Hymn	246장	
기 도(Prayer)	1부: 김유순 권사 2부: 최홍만 장로	
성 경 Scripture	시편 122편 1~9절	토요새벽기도회
설 교 Message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빌립보서 강해
▲헌 금 Offering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찬 송 Hymn	내 평생 사는 동안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